

구속·청문회에도 사과 없는 ‘그 사람들’…故 최숙현 비극

운동처방사 이어 감독 구속...묵묵부답 일관 증언

남자선배 김도환씨·운동처방사 안주현씨만 사과

지난달 26일 생을 마감한 고(故) 최숙현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선수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그 사람들’이 여전히 사과 없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들은 공개석상에 나서지 않은 채 자신들에게 징계를 내린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공분을 사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2일 오전 ‘철인 3종경기 선수 가혹행위 및 체육 분야 인권침해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다. 최 선수가 지난달 26일 메시지를 통해

“엄마 사랑해. 그 사람들 죄를 밝혀줘”라는 짧은 메시지를 남기고 숨을 거둔 지 약 한 달 만이다. 하지만 문체위가 출석을 요구한 핵심 증인 가운데 김규봉 전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감독과 전 운동처방사 안주현씨, 주장 장윤정 선수 등 출석 거부 의사를 밝혔. 이중 김 감독은 전날(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전 ‘혐의를 인정하냐’는 말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법정정으로 들어갔다. 영장실질심사 이후 법정

을 나설 때도 침묵으로 일관했다. 결국 김 감독은 ‘증거인멸과 도망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운동처방사 안씨에 이어 구속됐다. 이들은 이날 국회 청문회에도 출석을 거부하는 등 공개 석상에 일절 나서지 않은 채 사과 없이 혐의를 부인하고만 있다. 스포츠공정위로부터 중징계를 받았지만 이마저도 재심의 신청을 통해 “법률대리인을 통해 재심 사유와 이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마찬가지로 사과는 없었다. 최 선수가 언급한 ‘그 사람들’ 중 사과를 한 이는 남자 선배 김도환씨와 운동처방사 안씨뿐이다.

김씨는 지난 6일 문체위, 스포츠공정위에서는 폭행 및 폭언이 없었다고 잡아뗐지만 이후 폭행 사실을 고백했고 최 선수의 남궁달에 가서 사죄하는 모습을 보였다. 안씨의 경우 대한체육회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폭행 사실을 인정했지만, 김 감독에 대해선 ‘잘못이 없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했다. 최 선수의 동료선수, 김씨, 안씨의 증언과 목격이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사건의 중심인 김 감독과 장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최 선수의 아버지 최영희씨는 “가해자들 모두 법적 처벌을 받고 스포츠계에서 퇴출당하는 것이 나와 숙현이의 뜻이다. 끝까지 싸워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는 강



경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팀 김규봉 감독이 2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경찰과 함께 대구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경한 입장을 밝혔다. 신봉우 기자



7번 국도 차량 통행 막아선 지진이재민들 22일 오전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주민 1000여명이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반대하는 결기대회를 마친 후 흥해 마산 교차로를 봉쇄하면서 상하행선에서 극심한 정체 발생하고 있다. 주민들은 “시행령 개정안에 지진피해 이재민들이 실질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빠져있고 피해구제에 관한 내용만 있다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영호남 ‘폭우’·강원 일부 0mm...‘왜?’

기상청 “북한·동해 고기압이 비구름대 북상 가로막아”

정체전선(장마전선) 북상으로 22일 경남 합천(가야산) 134mm, 부산 사하 110mm 등 남부지방에 폭우가 쏟아지고 있다. 수원 88.8mm, 서울 송파 16.5mm 등 서울·경기 수도권에도 적지 않은 비가 왔으나 경기 동두천과 과주, 강원 속초와 춘천, 강릉, 제주에는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기상청은 이에 대해 “국지적인 작은 규모 저기압 발달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체전선은 보통 경기 남부에서 서울까지 비 구름대를 올리는데, 이번 집중호우성 장맛비는 북한과 동해 북부해상의 고기압 영향을 받아 비구름대의 북상이 가로막혔다. 이 때문에 장맛비를 뿌린 구름이 서울과 경기 동남부와 충북에서 광범하게 맞서다가 약해졌다.

기상청 관계자는 “정체전선 외 국지적인 작은 저기압이 고기압 등과 복잡하게 얽히면서 강수지역과 세기가 불규칙했다”고 설명했다. 21일 오전 0시부터 이날 낮 12시까지 주요지점 강수량은 경남 합천(가야산) 134mm를 비롯해 부산 사하 110mm, 경북 경주 산내 89mm, 청도 83.5mm이다. 전북 장수에는 90.9mm가 쏟아져 전라권에서 가장 많은 강수량이 기록됐다. 전남 구례 피아골 86mm, 전북 임실 85.5mm로 뒤를 이었다. 서울·경기 수도권에서는 수원 88.8mm, 안성(서운) 88mm, 의왕 86mm 등으로 90mm에 육박하는 누적강수량이 기록됐으며, 서울에는 송파 16.5mm, 강남 15.5mm, 강서 13.5mm로 확인됐다. 김민정 기자

대구 실제 감염자 18만명?...정은경 “조사 규모 적어 신중”

대구공동연구팀, 198명 검사결과 코로나19 항체 보유율 7.6%

대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실제 감염자 규모가 18만명을 넘어설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것과 관련해 방역당국이 신중론을 펼쳤다. 해당 조사가 기존 유전자검사법(RT-PCR)이 아닌 다른 검사법을 활용했고, 조사 대상 규모가 적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대구가톨릭대병원과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공동 연구팀은 지난 21일 이 같은 내용의 논문을 대한의학회 국제 학술지 'JKMS(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에 발표한다. 연구팀은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5일까지 대구가톨릭대병원을 방문한 일반환자와 보호자 198명을 검사한 결과, 15명(7.6%)이 코로나19 항체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했다. 진단검사를 받은 환자와 보호자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적이 없다. 따라서 항체를 보유한 7.6%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코로나19를 앓고 지나갔을 가능성이 높다. 연구팀은 대구 총 인구 243만8031명 중

7.6%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가정하면 실제 감염자 수는 18만529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현재 대구 인구 0.3%가 확진 판정을 받은 것에 비춰보면 방역당국 감시망을 벗어난 감염자가 훨씬 많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22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198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검사법이 신속 항체 진단키트를 사용한 것”이라며 “특이도(정확도)가 92%정도 되고, 대상자 규모가 조금 적기 때문에(검사 결과를) 해석하는데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정승호 기자

이별통보 여친에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 20대

검찰이 이별통보에 격분해 여자친구의 애완견을 벽돌로 내려치고,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20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2일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유재광)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A씨(21)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전형적인 데이트 폭력 범죄다”면서 “지칫 강력범죄로 변질 우려가 있었던 사건으로 엄벌이 필요하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반면 변호인 측은 “악질적인 폭력행사가 아닌 하나의 문제로 갈등이 벌어진 것이다. 여성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가한 것은 아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또 “피해

자의 신체를 촬영해 유포한 정황은 없다”고 주장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8월26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A씨는 지난 3월20일 오전 2시30분께 전북 전주시에 위치한 여자친구 B씨 집에 찾아가 B씨의 애완견을 벽돌로 3차례 내려친 혐의(동물보호법위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애완견을 품에 안고 달아나던 B씨를 쫓아가 폭행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A씨는 “헤어지자”는 여자친구 말에 화가나 B씨가 가장 아끼는 애완견에게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이슬 기자



인쇄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 803번안길 93-10
TEL : 062)943-0135 ~ 6
FAX : 062)943-0134